

국 어 (7 급)

(과목코드 : 014)

2026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음운 동화의 방향(순행, 역행)과 정도(완전, 불완전)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입만 - 신라 ② 권력 - 담력
- ③ 국민 - 천리 ④ 놓는 - 앓는

2. 맞춤법이 옳은 것은?

- ① 이를 악물은 채
- ② 때를 밀은 뒤에
- ③ 며칠 전에 뻥 양말
- ④ 입 안이 험은 것 같네

3.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꾸준히 ∨ 운동해야한다.
- ② 시간 ∨ 날 ∨ 때 ∨ 한 ∨ 번 ∨ 방문해 ∨ 주세요.
- ③ 살아남으려는 ∨ 몸부림으로밖에는 ∨ 보이지 ∨ 않았다.
- ④ 제 ∨ 28회 ∨ 수필 ∨ 공모전에 ∨ 여러분의 ∨ 많은 ∨ 참여 ∨ 바랍니다.

4. 서술 방식이 예문과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정의 → 동일한 근거를 가진 두 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한다.
- ② 대조 → 서양은 상대적으로 찬 음식이 발전한 반면 동양은 상대적으로 더운 음식이 발전했다.
- ③ 유추 → 건축하기 위해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글쓰기를 하려면 개요가 필요하다.
- ④ 분석 → 소설은 장편, 중편, 단편으로 나뉜다.

5. 사이시옷 규정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예) 셋째
- ②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빗물
- ③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베갯잇
- ④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중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예) 가윗일

6. 다음 예문과 가장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그는 정직한 사람이 틀림없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쓰일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 ② 어느 독자가 소설 속 주인공을 모방하여 범죄를 벌였다. 결과적으로 작가는 범죄를 초래한 셈이다.
- ③ 현대인이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이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대답이기 때문이다.
- ④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반영하는 교수가 그렇지 않은 교수보다 수업을 더 잘할 확률이 높다. 교육학자 ○○○이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술을 ㉠양조할 때 효모가 당분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는 생화학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효모는 단당류인 포도당과 이당류인 맥아당을 세포 내로 ㉢흡수한다. 이 과정에서 포도당한 분자는 두 분자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며, 효모는 생존과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원인 ATP를 2개 얻는다. 이후 산소가 풍부한 환경이라면 피루브산을 다시 분해하여 다량의 ATP를 얻을 수 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당을 분해하여 다량의 ATP를 얻는다.

그러나 효모는 산소가 없을 때에도 당을 분해하여 비록 소량이지만 ATP를 계속 얻을 수 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효모가 ATP를 계속 얻기 위해서는 NAD^+ 라는 물질이 필요하다. 효모가 NAD^+ 를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루브산에서 이산화탄소(CO_2)가 떨어져 나오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된다. 막걸리나 맥주를 마실 때 느껴지는 탄산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아세트알데하이드는 $NADH$ 로부터 전자와 수소 이온을 받아 에탄올이 되고 $NADH$ 는 NAD^+ 가 된다.

에탄올이 인체에서 분해되는 과정은 이와 반대이다. 에탄올은 간에서 분비되는 알코올 탈수소효소(ADH)와 만나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와 만나 아세트산으로 바뀌는데 이때 물도 필요하다.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의 활성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아세트산은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7. 윗글의 ㉠~㉣을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빛을
- ② ㉡ : 바꾸는
- ③ ㉢ : 들어간다
- ④ ㉣ : 쪼개지며

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TP는 효모의 에너지원이다.
- ② 효모는 이당류인 맥아당을 분해하지 못한다.
- ③ 효모는 산소가 없어도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다.
- ④ 막걸리나 맥주에 들어 있는 탄산은 아세트알데하이드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9.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이 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겠군.
- ② 사람이나 효모 모두 다량의 ATP를 얻으려면 산소가 필요하겠군.
- ③ 에탄올은 효모가 NAD^+ 를 얻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군.
- ④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 활성도에 따라 달라지겠군.

10.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약하고도 어찌 그리 돌아오지 않는가?
뜰에 핀 매화도 때 지나 지려 하네.
홀연히 가지 위의 까치 소리를 듣고
부질없이 거울 속의 눈썹 그리네.

- ① 여성적인 필치이다.
- ② 정서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다.
- ③ 별한(別恨)의 감정이 드러난다.
- ④ 화자는 임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 근대 국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다.
(나) 된소리 계열이 등장했다.
(다) 주격 조사 ‘가’가 출현했다.
(라) 방점과 성조가 소실되었다.
(마) 아래아(·)의 음가 및 표기가 완전히 소실되었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라)
- ③ (나), (다), (마)
- ④ (다), (라), (마)

※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 ‘-기’는 명사 파생 접미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형 전성 어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형태가 같아서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사 파생 접미사로서의 ‘-음’, ‘-기’는 용언 어간에 결합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데 이 단어는 사전에 등재될 수 있다. 반면 명사형 전성 어미로서의 ‘-음’, ‘-기’는 용언 어간에 결합하더라도 그 용언의 성질은 유지되며 단지 그 용언은 체언과 같은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이다.

파생 명사와 ㉠용언의 명사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파생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나 명사형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둘째, 파생 명사는 용언으로서의 서술성이 사라졌으므로 논항을 취할 수 없다. 반면에 명사형은 여전히 용언이므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같은 논항을 취할 수 있다.

셋째, 파생 명사에는 선어말 어미가 개재할 수 없으나 명사형에는 시제나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개재할 수 있다.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언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
- ②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와 명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단어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 ③ 명사형 전성 어미 ‘-음’, ‘-기’가 용언 어간에 결합한 형태는 목적어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 ④ 명사형 전성 어미 ‘-음’, ‘-기’가 용언 어간에 결합한 형태는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될 수 있다.

13. 밑줄 친 단어가 ㉠용언의 명사형이 아닌 것은?

- ① 그는 폭 잡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② 우리는 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다.
- ③ 네가 10km를 달리기는 쉽지 않다.
- ④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4.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가 바르게 제시된 것은?

- ①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예외) 파일(file)
- ②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예외) 펄프(pulp)
- ③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예외) 아웃(out)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가스(gas)

15.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난번처럼 어리버리 하려고?
- ② 뭘 그리 아등바등 이기려고 해?
- ③ 나도 잠깐 어디 좀 들렀다 느지막이 합류할게.
- ④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어.

16. 다음 시와 가장 관련이 없는 설명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① 의인화 기법이 사용되었다.
- ②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했다.
- ③ 대상에 대한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냈다.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콜라 학자들은 여러 세대가 지나도록 엄청난 정보 더미에서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찾게 해 주는 정리 원칙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개별 정보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도서관 목록에는 성서가 제일 먼저 와야 했고, 그 다음에는 교부들의 글이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여 제일 마지막에는 자유 학예에 관한 책이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서의 권위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는 방법이 항상 효과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소소한 세목의 차원에 들어가서는 이 방법이 별 쓸모가 없었으므로 스콜라 학자들은 고대 세계에서 이따금씩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가끔 사용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일관되게 쓰이지 않았던 체계, 즉 알파벳순의 배열 방식을 사용해서 이를 보충했다. 이 방식은 숫자의 수열만큼이나 추상적이었으므로 그것에 따라 정리되는 내용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고, 모순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내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나 사용될 수가 있었다. 그 방식은 사전을 정리할 때도, 성서나 고대 그리스 문헌의 용어 색인에도, 도서 목록에도, 정부 문서에도 모두 사용될 수 있었다.

- ① 스콜라 학자들은 오랜 기간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정리 원칙을 확립하지 못했다.
- ② 문서의 권위에 따른 배열 방식은 세부 항목 차원으로 내려가면 실효성이 없었다.
- ③ 알파벳순 배열은 고대 이래 일관되게 사용되어 온 체계로서 스콜라 학자들이 이를 계승했다.
- ④ 알파벳순 배열은 사전·색인·도서 목록·정부 문서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었다.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온도를 높이는 열수주입법과 압력을 낮춰주는 감압법이 주로 쓰인다. 일본이 이번에 시도하는 방법은 시추공 내에서 낮은 압력으로 하이드레이트를 녹여 메탄 gas와 물을 분리하는 ‘감압법’이다. 2008년에 캐나다 말리크 지역의 육상 동토층에서 감압법을 사용해 세계 최초로 육상 시험 생산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감압법을 하기 위해선 먼저 수심 500m 해저 바닥에서 드릴을 이용해 수심 1,000m까지 해저 지각을 뚫고 들어간다. 그런 다음, 시추공 내부의 물을 뽑아내 지층의 압력을 낮춰준다. 압력이 충분히 떨어지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녹으면서 gas와 물이 생긴다. 이를 위로 빨아올린 다음 가스만 분리해 내면 된다. 감압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가장 일반적인 생산 방식이다.

그런데 감압법에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 지층 사이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녹였을 때 지반이 약해져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해저 통신케이블 및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으며 심하면 지진과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고체 상태 그대로 놔둔 채 안에 들어 있는 가스만 뽑아 쓰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 ① 감압법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
- ② 감압법과 열수주입법의 장단점을 비교, 대조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다.
- ③ 감압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정리한 다음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감압법의 시추 절차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해 왕이 늘 놀리며 말하기를, [가] “네가 늘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므로 자라서도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는 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 하였다.

딸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 상부(上部)의 고씨(高氏)에게 시집을 보내려 하니 공주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라 하시더니 이제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시던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匹夫)도 오히려 식언을 하지 않으려 하거든 하물며 지존의 자리에 계신 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임금된 자는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감히 받들어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진노하며 말하기를, “네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실로 내 딸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어찌 함께 살 수가 있겠느냐? 마땅히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거라.” 하였다.

이에 공주는 값비싼 팔찌 수십 개를 팔꿈치 뒤에 매달고 궁궐을 나서 홀로 떠나오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이에 그 집에 이르렀다. 눈먼 늙은 어머니를 보고 앞으로 다가가 절하고는 아들 있는 곳을 물었더니 늙은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들은 가난하고 비루하여 귀인이 가까이할 것이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체취를 맡아 보니 향기가 보통이 아니고 그대의 손을 만져 보니 부드럽고 매끄럽기가 솜과 같으니 틀림없이 천하의 귀인입니다. 누구의 뽕으로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우리 자식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산속에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하였다.

공주가 길을 나서 산 아래에 이르러 온달이 느릅나무 껍질을 삶아지고 오는 것을 보고는 공주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려 하였더니 온달이 버럭 화를 내며 하는 말이, “이곳은 어린 여자가 다닐 만한 곳이 아니니 반드시 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것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고 마침내 떠나 버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19. [가]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사건을 회상함
- ② 인물 간 갈등을 해소함
- ③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함
- ④ 사건 전개에 방향을 제시함

2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이 드러난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표현한다.
- ③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위를 평가한다.
- ④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2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을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_____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_____
-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
 -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관계를 정확히 표현할 것
 - 중복적인 표현은 간결하게 고칠 것
 - 문맥에 맞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할 것

국방부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군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본 사업에서는 각 부대의 초급 간부, 병사, 군무원을 대상으로 ㉢AI 기초 이해, 생성형 AI 활용, 실무 중심의 AI 활용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작정입니다.

- ① ㉠ : AI 활용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 ② ㉡ : 「군 AI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 ③ ㉢ : AI 기초 이해, 이론 중심의 생성형 AI 활용, 실무 중심의 AI 활용 등의
- ④ ㉣ : 예정입니다.

2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언’은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이 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주된 원인은 오해와 편견이라고 생각된다. 방언에 대한 오해의 예로서, 방언을 ‘사투리’와 동일시하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표준말과 달리, 그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표준말 ‘여우[狐]’에 대한 ‘여끼’나 ‘예끼’는 함경도 사투리이고, ‘여시’나 ‘여수’는 전라도와 서부 경상도의 사투리이며, ‘야시’나 ‘예수’는 동부 경상도의 사투리이다”라고 할 때의 ‘사투리’가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언어학에서는 방언을 “그 자체로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언어의 변종(變種)”이며, “표준말과 달리, 그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말”을 사투리라 하여 그 둘을 구별한다. 따라서 방언은 표준말과 구별되는 말(= 사투리)뿐만 아니라, 표준말과 동일한 말도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경상도 방언’이라고 할 때, 그것은 토박이 경상도 사람이 사용하는 말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토박이 경상도 사람이 “가아가서 아아 조오라(가져가서 아이에게 주어라)”나 “예수는 다리가 네 개다(여우는 다리가 네 개다)”나 “이 사람이 손발이 크다”고 말한다면, 그 말 모두가 경상도 방언이 되는 것이다.

- ① 방언과 사투리는 서로 무관하다.
- ② 방언은 사투리의 하위 개념이다.
- ③ 방언은 표준말과 달리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말이다.
- ④ 방언은 표준말과 구별되는 말, 표준말과 동일한 말을 모두 포괄한다.

23. 한자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책을 읽은 감상(感傷)은 한마디로 ‘대단하다’였다.
- ② 저녁이 되자 거리에는 노점(露店)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 ③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과감(過敢)해야 한다.
- ④ 그는 나이는 어리지만 입사 연도로 따지면 우리 부서에서 제일 고참(高參)이다.

24. 다음 글에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세계 각국에서 채식주의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가) 환경변화로 각종 가축 질병이 유행한 데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으로 비윤리적 육식이 지목된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나) 영국의 경우 인구 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채식주의자도 100만~150만 정도로 추산된다.

(다) 채식주의는 일부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부터 완전한 채식주의(비건)까지 다양한 단계로 나뉜다.

(라) 아직은 그들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몇 년 사이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25. (가) ~ (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한국의 영웅소설은 다음과 같은 서사 구조를 지니는 특징이 있다.

- (가) 주인공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능력을 점차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스승을 만나거나 특별한 무예와 지혜를 익히며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 (나) 주인공은 공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가문을 회복하고, 잃었던 명예를 되찾는다. 이를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낸다.
- (다) 주인공은 대개 비범한 탄생 설화를 지니며, 귀한 혈통이나 신비한 징조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출생 직후 버려지거나 가문이 몰락하는 등 시련이 함께 제시된다.
- (라) 주인공은 국가적 위기나 개인적 원한과 같은 갈등 상황에 맞서 싸운다. 이 과정에서 적을 물리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다) - (나) - (라) - (가)
 ④ (다) - (가) - (라) - (나)